

## 제구 난조·ERA 10.17... 이의리 살아야 KIA 가을야구 보인다

28일 SSG전서 2⅓이닝 2피안타 7사사구로 부진  
문제는 불안한 제구... 9이닝당 사사구만 7.7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영건 이의리가 부상을 털어냈지만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의리는 지난 28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 선발 등판했으나 3회도 채우지 못하고 일찍이 마운드를 내려갔다.

제구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이의리는 1-0으로 앞선 1회말 경기 시작부터 볼넷-몸에 맞는 공-볼넷-볼넷으로 밀어내기 실점했다. 계속된 무사 만루에서는 류효승의 3루수 땅볼로 1점을 헌납했다.

그리고도 이의리는 오타곤에게 또 볼넷을 허용해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뒤이어 김태균을 3루수 땅볼, 고영준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으나 1회에 만루 사사구는 5개나 됐다. 경기 초반부터 38구를 던져 체력적인 부담을 떠안았다.

6-2로 리드를 잡은 2회에는 아슬아슬했지만 무실점 피정을 선보였다. 2회말 박성환과 최정에게 안타를 맞아 2사 1, 3루로 몰린 이의리는 후속 길레르모 에레디를 삼진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의리는 3회에 등판해 선두타자 류효승을 삼진으로 잡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싶었으나 다시 오타곤과 김성욱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흔들렸다. KIA 벤치는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 1사 1, 2루에서 이의리를 내리고 김건국을 투입했다.

살아난 타선 덕분에 이날 KIA는 SSG에 10-6 승리를 거뒀지만, 막대한 볼넷 소모를 떠안고 주말 3연전을 치르게 됐다.

이의리는 직전 등판이었던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4이닝 동안 2개의 홈런을 포함해 9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을 내주며 조기 강판당하는 쓴맛을 봤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기나긴 재활과 회복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1군으로 돌아온 이의리는 지금까지 7경기에 선발 등판해 승리 없이 2패 평균자책점 10.17을 기록, 큰 부진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구 불안으로 인해 늘어난 볼넷. 그가 25%이닝 동안 허용한 볼넷은 총 19개, 몸에 맞는 볼까지 더하면 22개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9이닝당 7.7개의 사사구나 내준 셈이다.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직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구가 흔들리면 강속구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2021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KIA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에 데뷔한 이의리는 입단 첫째 19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5패 평균자책점 3.61을 기록, 그해 신인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듬해인 2022년엔 29경기에서 10승 10패 평균자책점 3.86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기고 데뷔 첫 두 자리 승수를 수확하는 기쁨도 누렸다.

이의리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2023시즌 28경기에 선발 등판해 11승 7패 평균자책점 3.96을 기록, 2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하며 KIA 마운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예상치 못한 부상 악초를 만났다.

지난해 4월 10일 LG전에 선발 등판했다가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전열에서 이탈한 이의리는 치료를 거쳐 5월 29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지만, 통증이 재발해 지난해 6월 초 수술대에 올랐다.

약 1년의 재활을 거쳐 당초 올해 6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팔꿈치 염증이



발견돼 지난달 초가 돼서야 1군 무대에 얼굴을 비출 수 있었다.

현재 이의리가 짊어준 부담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팔꿈치 부상으로 1년 이상을 쉬었고, 아직 완전히 감각을 회복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같은 선발진인 황동하와 윤영철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선수의 시즌 아웃으로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이의리가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지점은 맞다.

그러나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KIA에겐 여유가 없다. 지난 시즌 챔피언에 등극했

던 KIA는 올 시즌 초반 하더라도 절대 1강으로 불리는 강팀으로 꼽혔다. 그러나 올 시즌 부상 악재와 부진이 겹치며 현재 8위에 머물러있다.

중위권이 워낙 혼전 양상이라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8위로 밀려나 있지만 3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격차는 3경기에 불과하다. 6연패로 부진했던 KIA는 최근 2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KIA의 가을 야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의리가 제 페이스를 되찾아야 한다. 그가 살아난다면 KIA의 가을야구뿐 아니라, 선발진의 앞날도 한층 밝아진다.

뉴스



### 영암군민속씨름단, 군민·팬 앞 100회 우승 금의환향 '통산 100회 우승 달성 기념식'...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다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8일 군청에서 영암군민, 영암민속씨름단후원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민속씨름단 통산 100회 우승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2017년 창단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이달 1~7일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사 씨름대회 단체전 우승으로 통산 100승의 금자탑을 쌓은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

통산 100승은 대한민국 민속씨름 리그 사상 최초의 성적이고, 지역 연고 스포츠단 역사에서도 굵은 글씨로 기록될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기의 고장 영암을 대표하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통산 100승으로 영암군민과 향우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줬다. 선수단의 땀과 영암군민의 응원과 후원이 만들어낸 쾌거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영

암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말했다.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의 100회 우승 영상 상영, 기념패·꽃다발 전달 등으로 영광의 역사를 돌아봤다.

나아가 김기태 감독, 최정만 주장 등 선수단의 비전과 소감을 청취하며 내일을 다졌다.

이어 씨름단과 팬들은 기념 촬영, 메시지 남기기, 사인 이벤트 등으로 100회 우승을 추억으로 남겼다.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은 "영암군민의 성원과 후원회의 물질양면 지원이 있어서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더 철저한 훈련과 선수단의 단합을 바탕으로 한 좋은 성적으로 영암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케이션 전 타석 GDR클럽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이)한화/건설 | HDC엔지니어링

### 이강인의 PSG vs 김민재의 뮌헨, UCL서 2시즌 연속 '코리안더비'

#### '디펜딩 챔프' PSG, 손흥민 떠난 토트넘·박승수 소속 뉴캐슬과도 대결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과 센터백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유럽 축구 최강 클럽을 가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2시즌 연속 '코리안 더비'를 만나게 됐다.

UEFA는 29일(한국 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2025~2026시즌 UCL 리그 페이즈 대진 추첨식을 개최했다.

새 시즌 대진 추첨 결과 이강인이 속한 2024~2026시즌 UCL 챔피언 PSG는 김민재가 뛰는 뮌헨과 강호 뮌헨과 격돌한다.

PSG는 홈에서 뮌헨을 비롯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박승수의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아탈란타(이탈리아)를 상대한다.

원정에서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 레버쿠젠(독일), 스포르팅(포르투갈), 아틀레틱 빌바오(스페인)와 붙는다.

뮌헨은 홈에서 첼시(잉글랜드), 클럽 브뤼헤(벨기에), 스포르팅(포르투갈), 루아얌 위니옹 생질루아즈(벨기에)와 만난다.

원정에선 PSG, 아스널(잉글랜드),

PSV아인트호벤(네덜란드), 파포스 FC(키프로스)와 대결한다.

이강인과 김민재는 두 시즌 연속 UCL 격돌이다. 2024년 11월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시즌 UC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김민재가 선발로 나선 가운데 이강인 교체로 출전하면서 코리안더비사 성사됐고, 경기는 김민재가 전반 38분 헤더로 UCL 데뷔골을 터뜨려 뮌헨이 1-0 승리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8강에서 붙었는데, 이강인과 김민재 모두 벤치에 머물러 코리안더비는 불발됐고, PSG가 2-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과 결별한 토트넘은 홈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비야레알(스페인), 슬라비아 프라하(체코), 코펜하겐(덴마크)과 만나고, 원정에서 PSG,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 보되/클럽트(노르웨이), AS모나코(프랑스)와 맞붙는다.

박승수 소속팀 뉴캐슬은 홈에서 바르셀로나, 벤페카(포르투갈), 아인트호벤, 빌바오와 붙고 원정에서 PSG, 레버

쿠젠, 마르세유(프랑스), 위니옹과 대결한다.

UCL 최다 우승팀(15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유벤투스(이탈리아), 마르세유, 모나코와 붙고 원정에서 리버풀(잉글랜드), 벤페카, 울림피아코스(그리스), 카이랏트 알마티(카자흐스탄)와 만난다.

UCL은 지난 시즌부터 32개국에서 36개국으로 늘어나 리그 페이즈 제도로 운영된다. 36개 팀이 UEFA 계수에 따라 4개 포트에 나뉘어 모든 팀이 포트별 2개 팀, 총 8개 팀(홈과 원정에서 각각 4경기)과 맞대결을 벌인다.

이후 1~8위 팀은 16강에 직행하고 9~24위 16개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러 16강 합류 여부를 가린다. 25~36위 팀은 탈락이다. 리그 페이즈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펼쳐진다.

16강 토너먼트는 내년 3월 시작하고 결승전은 내년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올 시즌부터 결승전은 Kickoff 시간이 3시간 앞당겨져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에 열린다.

뉴스

### '2025년 광양전국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개최

#### 전국 라인댄스 동호인 400여 명 참가

광양시는 오는 9월 13일 성황스포츠펀터에서 '2025 광양전국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와 광양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라인댄스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하며, 초등부·청·장년부·시니어부로 나누어 경연이 진행된다.

강영화 체육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라인댄스의 올바른 이해와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인댄스는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춰 음악에 따라 같은 동작을 반복해 추는 춤으로, 동작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코믹한 요소가 더해져 단체무용으로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광양/신선호 기자

2025년 광양전국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다양한 장르의 라인댄스 공연을 선보이는 건강하고 즐거운 행사는 즐거움!

대회 일시 2025. 9. 13. (토) 오전 10시

신청접수기간 2025. 7. 12. ~ 8. 15.

대회 장소 성황스포츠펀터다목적체육관

댄스 종목 라인댄스

전화문의 010. 9308. 8040

주최·주관 : (사)광양시체육회 | 후원 : 광양시체육회